

美國의 經濟學教育과 研究*

洪 起 玄**

<目 次>	
I.	序 論
II.	歷史的 背景
III.	經濟學教育制度
IV.	教育內容과 研究
V.	結 論

I. 序 論

2차대전 이후 미국은 經濟學 研究의 중심지가 되어 왔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경제학자 중 다수가 연구하는 經濟學理論이 세계 전체 경제학 연구의 主流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미국경제학의 영향은 우리나라에서도 막대하여, 해방 이후 한국경제학은 미국경제학의 시대가 되었다고 볼릴 정도이다.

古典派 經濟學의 발상지가 영국이었고, 限界革命의 추진자들도 주로 영국과 유럽대륙에서 배출되었다는 歷史的 事實에 비추어 볼 때, 2차대전 이후의 미국경제학의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현재 세계 전체 경제학계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Mark Blaug 등 (1983)이 편집한 經濟學者 人名錄에서도 잘 나타난다. 1980년을 기준으로 하여 생존하고 있는 경제학자 중 200여개의 경제학전문지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자 674명을 Blaug가 뽑은 가운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과반수를 넘는 396명에 이르고 있다(表 1 참조).

이 표는 Blaug의 人名錄에 나타난 경제학자 중 198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사망한 경제학자로서 각종 경제학설사 책에 소개되고 있는 397명의 학자와 被引用度가 높은 674명의

* 본논문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수집에 도움을 준 연세대학교의 윤건영 교수, 홍 훈 교수, 한국노동연구원의 박기성 박사, 하버드대학교에 유학중인 이상승군, 예일대학교에 유학중인 전성훈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정욱군에게 감사드린다.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助教授

〈表 1〉 著名 經濟學者의 國別 分布

	거주국별 분포		출생국별 분포	
	사 망	생 존	사 망	생 존
오스트레일리아	1	7	0	6
오스트리아	13	1	20	18
캐나다	2	19	6	18
프랑스	55	25	49	24
독일	45	19	47	38
이스라엘	0	9	0	11
이탈리아	19	6	19	9
일본	0	6	0	13
네덜란드	2	4	3	10
러시아	12	1	21	8
스웨덴	7	4	6	5
스위스	7	4	5	0
영국	138	86	149	73
미국	86	396	51	289
기타 국가	10	12	15	67
자료 누락	—	75	—	75
총 계	397	674	397	674

資料 : Blaug and Sturgess (1983).

생존 경제학자를 居住國, 出生國別로 새로 정리한 표이다. (1) 사망한 경제학자와 생존하고 있는 경제학자의 수의 합이 많은 上位 14개국을 선택하여, 각국별로 비율을 살펴보면, 영국과 유럽대륙의 국가들의 저명한 경제학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신대륙—특히 미국—의 경제학자의 비율이 팽창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학자의 出生國 分布와 居住國 分布를 비교할 때, 경제학자가 구대륙에서 미국으로 많이 이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세기에 유럽대륙에 비해 늦게 경제학이 연구되기 시작한 미국이 어떤 이유로 인해 경제학의 強大國이 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II節에서는 美國經濟學의 歷史를 경제학의 연구환경과 관련하여 다루어 보겠다. 다음으로 III節에서는 미국경제학의 성장을 촉진시킨 바탕이 되는 미국의 經濟學教育制度를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겠다. 여기에서는 학부과정 이상의 교육제도는 물론, 경제학자의 進出 및 活動狀況에 대해 언급하겠다. IV節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經濟學의 理論內容을 주로 教科課程과 講義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최근까지 미국에서 개발된 이론의 특징도 살펴보겠다.

(1) 경제학자의 평균자연수명이 45세일 때, 被引用度가 가장 높다는 사실(姜命圭(1981) 참조)을 : 안한다면, 1980년 기준으로 사망경제학자는 二次大戰前에, 생존경제학자는 二次大戰後에 활동한 것으로 대체로 말할 수 있다.

다. 여기에는 미국경제학계의 각분야별 研究動向도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필자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본논문의 중요한 과제도 아니므로 몇 가지 흥미있는 사례들만 선택하여 살펴보는 정도에서 다루어 보겠다.

이와 같은 知識社會學的 研究는 현대 경제학의 위상을 검토해 보는데 대단히 필요한 일로서, 面談, 意見調查, 統計의 方法 등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필자의 능력과 자료의 한계상, 필자가 참여관찰한 짧은 유학경험과 기존의 문헌 등을 선택적으로 이용하여 개략적인 조사에 그쳤음을 미리 밝혀둔다.

II. 歷史的 背景

1. 美國經濟學界의 形成과 成長

1870년대 이전의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학계 또는 과학자집단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미국에서 최초로 경제학분야에서 교수가 된 사람은 목사였던 J. McVickar로서, 그는 1817년부터 1864년까지 콜럼비아 칼리지의 교수직을 가졌다. 그렇지만, 영국이나 구대륙에서와 마찬가지로, 經濟學은 하나의 독립된 학과에서 제공되는 교과목이 아니라, 神學, 倫理學, 哲學, 政治學 교과과정의 하나로서 가르쳐질 뿐이었다.

본격적으로 경제학을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개설하려는 노력은 하버드 칼리지의 C.F. Dunbar였다.⁽²⁾ 그는 1871년에 교수가 된 후, 1878년에는 대학원에 경제학과를 창설하고, 1886년에는 세계 최초의 경제학 전문지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를 발간하는데 노력하여, 제 1대 편집자가 되었다. 또한 1894년에는 하버드대학에서 경제학박사학위가 수여되기 시작했다.

1900년 초에 이르면, Columbia, Chicago, Princeton, Johns Hopkins, Yale, Wisconsin 등 우수한 대학에서 경제학을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가르치게 되었다. 또한 1892년부터 Chicago 대학에서는 *Journal of Political Economy*를 발간하여, 경제학 논의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당시의 經濟學의 內容을 살펴보면, 1870년대까지는 고전파적 영향이 가장 컸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T. Veblen 등으로 대표되는 制度主義者와 J.B. Clark, I. Fisher 등으로 대표되는 限界主義者가 서로 경쟁적으로 영역을 확대해 가게 된다. 특히 독일에 유학을 갔다 온 후 독일 歷史學派의 영향을 받은 일단의 경제학자들은 1885년에 미국경제학회

(2) 하버드대학의 경제학과 역사에 대해서는 Mason(1982)을 참조하라.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를 창립하였다.⁽³⁾ 미국경제학회의 사무총장으로서 초기에 학회를 주도하였던, Richard T. Ely는 自由主義的 經濟學을 비판하고 경제학의 현실적인 기여를 강조하였다. 이에 반해 한계주의자들은 보다 정밀한 實證經濟學을 추구하였는데, 학회의 운영방향을 놓고 상당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이윽고 1892년에는 중도적인 Dunbar가 회장이 됨으로써, 그 이후 점차 限界主義者가 득세하게 되었고, Ely를 위시한 制度主義者들은 미국경제학회의 활동에서 거리를 두게 된다.

이상과 같이 미국은 경제학의 후발국임에도 불구하고, 學會의 形成, 專門誌의 發刊, 學科의 創設面에서는 유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빨랐다. 사실상 1890년에 창립된 영국경제학회(British Economic Association)와 1891년부터 발간된 전문지(*Economic Journal*)는 미국의 선구적 시도에 의해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빨리 성장의 여건을 갖춘 미국 경제학계는 193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는데, 주목할 만한 성장의 계기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고 싶다.

첫째, 兩次大戰間의 시기에 이루어진 유명한 경제학자의 移住가 미국경제학계 발전의 활력소가 된 점이다. 1930년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의 전체주의정권의 성립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저명한 유럽의 경제학자들이 속속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의 대학과 연구소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미국경제학은 별다른 비용없이 유럽의 첨단경제학자의 研究成果를 받아들여지게 된 셈이 되었다.⁽⁴⁾

이 당시 유럽각국으로부터 이주해 온 경제학자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예를 들면, J.A. Schumpeter, G. Haberler, F. Machlup, W. Leontief, Tjalling Koopmans 등이 있다. 이 밖에도 John von Neumann과 Oskar Morgensten과 같은 수리경제학자로 부터 Alexander Gerschenkron과 같은 경제사가에 이르기까지 미국경제학계에 편입된 사람은 수없이 많다.

둘째, 미국의 각종 經濟研究所의 活動이 활발해졌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1920년에 W.C. Mitchell의 주도로 설립된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은 미국경제에 대한 統計的 研究로서 聲價를 높였으며, 이에 반해 선형적 이론과 계측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시카고대학의 코울즈위원회(Cowles Commission)를 중심으로 활발한 計量經濟學 研究가 이루어지게 되었다.⁽⁵⁾

(3) 미국경제학회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는 Coats(1960)를 참조하라.

(4) 유럽학자의 미국 이주 경위와 영향에 대해서는 Craver(1986)와 Craver and Leijonhufvud(1987)의 논문을 참조하라.

(5) 특히 1943년부터 1948년에는 J. Marschak의 주도하에 T. Haavelmo, L. Klein, T. Koopmans

세계, 미국의 경우 기존의 經濟學的 傳統이 짧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이론과 기법이 개발되고 흡수되기에 더 유리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1930년에 R. Frisch의 주도로 계량경제학회(The Econometric Society)가 결성되고, 1933년에는 전문지(*Econometrica*)가 발간되어 計量經濟學 研究가 본격화되었다. 또한 케인즈경제학도 A. Hansen의 재빠른 변신과 P. Samuelson과 같은 유능한 경제학도의 지지에 의해 1940년대에 미국에서 새로운 경제학으로서 각광받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차대전 이후 經濟的 發展과 함께 대학이 급속도로 성장하기 이전에도 미국경제학은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 이미 마련해 놓았다고 말할 수 있다.

2. 美國經濟學界의 風土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학의 전문화가 비교적 빠르게 진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법이나 이론이 흡수되기에 빨랐다고 지적했었지만, 이 사실이 갖는 의미를 살펴 보겠다. 우선 미국의 경우 철학이나 윤리학보다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기가 용이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표적인 限界主義者인 Simon Newcomb이나 Irving Fisher는 수학자였다.

자연과학의 영향보다 더 중요한 환경의 변화로서는 미국대학에서는 교수의 영입과 승진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강의보다 연구업적을 강조하는 경향이 일찍부터 생겼다는 사실이다.⁽⁶⁾ 즉 미국의 대학행정가나 대학당국에서 生産性的 基準으로서 얼마 만큼 논문 등 研究業績을 발표했는가를 중시했다는 것이다. 유럽과는 달리 사회의 엘리트층이 되는데 별다른 身分上의 制約이 없는 미국에서는, 우수한 학생이 엄밀한 이론을 개발하여 다수의 새로운 연구업적을 보이는 것이 교수적으로 나아가는 데 확실하고도 빠른 길이 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현실의 이해관계에 얽힌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언급을 회피하려는 專門家的 保守主義 (professional conservatism)의 경향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지만, 경제학의 洗鍊化에 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한편 경제학자가 현실의 經濟政策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는 유럽에 비해 대단히 간접적이 되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이론개발을 통한 여론조성이나 교육을 통해 주로 간

의 계량경제학적 연구가 활성화되었다.(이 당시 계량경제학적 연구의 역사에 대해서는 Kim (1988, 제 3장)을 참조하라.) 이 위원회는 1955년에 예일대학으로 옮겨져 코울즈재단(Cowles Foundation)이 되었다.

(6) 이하는 Backhouse(1985)에 소개된 Coats(1980)의 논의를 많이 참조하였다. 최근 미국의 대학 교수에 대해 강의와 연구의 비중에 관한 의견조사를 해 본 결과 젊은 교수일수록 연구를 절대 중시하는 선호가 여전히 강하다. (강우철 외 (1983, pp.54-5)).

접적으로 經濟政策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1946년 「고용법」이 통과된 후 결성된 대통령 경제자문회의(Council of Economic Advisers)의 성격을 보더라도 경제학자의 영향력이 간접적임을 알 수 있다. 이 위원회는 經濟計劃의 주체나 巨視經濟政策의 사령탑이 아니며, 그 위원들은 주로 실무적인 경제전문가이지 경제이론가는 아니었다[Barber (1981, pp. 520-1)].

이와 같이 행정부나 기타 이익단체에 대해 독립적이고, 자체내 학문적 평가기준을 가진 학문공동체의 성립은 경제학이론의 발전과 그 이론내용에 환경적인 여건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

III. 經濟學教育制度

1. 經濟學教育產業의 市場構造

미국의 경제학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각대학교의 경제학과들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經濟學教育產業의 規模는 대단히 크다. 1985년도 미국경제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학과가 설치된 4년제 대학의 수는 992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85년을 기준으로 미국경제학회에서 발간되는 *American Economic Review*를 구독하는 회원 중 미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의 수는 18,300명에 이르고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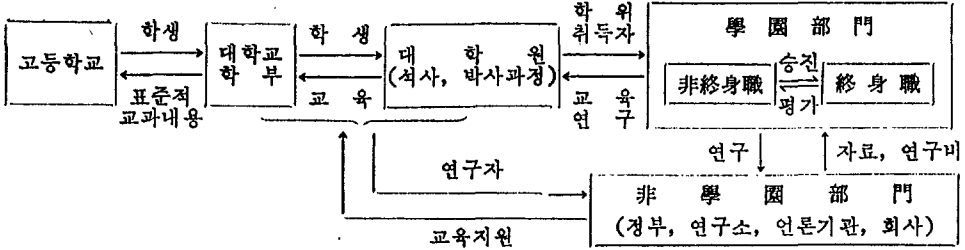
이와 같이 큰 규모를 가진 경제학시장을 教育過程上的 段階別로 살펴보면, 의견상 우리나라의 學制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表 2〉 참조). 고등학교 졸업자가 4년제의 대학에 진학하면, 이들 중 대체로 대학 3,4학년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기로 신청하고 경제학분야의 학사학위를 갖고 졸업하게 된다. 학부졸업자 중 학부의 전공여부에 관계없이, 대학원의 경제학과에 진학하는데, 석사과정만 있는 학교에서는 석사학위를 받게 되고, 박사과정이 있는 학교에서는 석사학위 有無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취급되고 일정한 요건—대체로 필수과목 이수, 자격시험, 논문—이 충족되면 학위를 주게 되어 있다. 대체로 대학원 입학 후 박사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5년 정도로서, 다른 순수과학보다는 짧으며, 공학계통보다 약간 긴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박사학위 취득자의 3분의 2 이상은 教育機關에 취직이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정부, 연구소, 회사 등에 취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⁸⁾

(7) *American Economic Review*, Dec. 1985, 참조. 이는 1,900여개에 이르는 미국의 4년제대학의 과반수 이상이 경제학과를 가진 것으로, 사실상 미국내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대학은 거의 모두 경제학과를 가진 셈이 된다.

(8) Strauss(1971, p. 328)에 인용된 조사에 따르면, 1969년에 새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表 2〉 美國 經濟學教育產業의 市場構造



〈表 2〉에 나타난 각 기관사이에는 需要・供給의 원리가 작용하는 본래적 의미에서의 市場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는 價格과 非價格 兩面에서의 競爭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메카니즘이다. 예를 들어, 1970년대초 A.M. Carter(1971)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학 박사학위취득자의 공급과잉에 의해 경제학 조교수의 초봉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실제의 초봉은 1967년 기준가격으로 1971년의 10,472달러에서 1976년의 8,856달러로 낮아졌다[Scott(1979, p.139)]. 그렇지만, 나쁜 직업사정을 보고 경제학 박사과정 지원자가 줄었으므로, W.L. Hansen 등의 연구(1980)에 따르면 1970년대말에는 A.M. Carter의 예측치보다 직업사정이 좋아졌다. 또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다시 직업사정이 훨씬 좋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表 2〉에 나타난 각 기관 사이의 관계는 시장메카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市場이 完全競爭市場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多數의 供給者와 多數의 需要者가 있고, 學緣・地緣 등의 요인에 의해 進入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은 있지만, 상품의 質이 同質的이 아니며 상품에 대한 完全情報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공정하고 다수에게 공인되는 기준에 의해 교육의 質 또는 학위취득자의 實力 등이 평가되므로, 競爭의 원리는 상당히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表 2〉에 나타난 각 기관 내부에서는 졸업, 학위취득, 승진에 관해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져, 內部市場을 통제하는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로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각 교육단계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보겠다.

2. 大學校의 教育與件

미국대학의 학사일정은 대체로 9월에 시작되어, 한 학년이 다음 해 8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學期制(semester)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의 가을 학기는 9월에 시작되어 12월에 끝나고, 봄 학기는 1월에 시작되어 5월말에 끝나는데, 각 학기중에는 한 차례 정도의 짤막

들 중, 64.8%가 교육기관에, 9.3%가 정부에, 7.1%가 민간산업에, 3.7%가 비영리기관에, 2.4%가 post-doctoral fellowship에, 12.3%가 기타에 취직된 것으로 되어 있다.

〈表 3〉經濟學 專攻學生의 數¹⁾

	1980-81	1987-88
학위 취득자 수		
학 사	5,889	6,910
석 사	710	719
박 사	410	368
대학원 등록자 수		
석 사	861	691
박 사	2,279	2,886
대학원생중 지원받는 사람		
석 사	271	188
박 사	1,582	1,997

資料 :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89, p.422.

註 : 1) 학사학위만 주는 80개 학교, 석사학위만 주는 20개 학교, 박사학위까지 주는 50개 학교에서 풀 타임(full-time)으로 등록한 학생만을 계산함.

한 휴가를 제외하고는 집약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며 긴 여름방학을 갖고 있다. 쿼터제(quarter)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는 9~12월의 가을쿼터, 1~3월의 겨울쿼터, 3~6월의 봄쿼터, 7~8월의 여름쿼터로 쿼터간의 짧은 방학을 제외하고는 연중 계속 강의가 이루어져, 학생들은 대체로 3개 쿼터를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私立學校의 경우 평균 교수對 학생의 비율은 1:10線이며, 공립학교의 경우는 1:15線으로, 집약적이고도 質이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학계통의 교수의 수와 학생의 수를 보면, 교수對 학생의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학부에서의 전공으로서 경제학의 인기를 반영한다(〈表 3〉 참조). 그렇지만,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의 상당수는 졸업후, 바로 사회에 진출하거나 경영대학원이나 법과대학원에 진학하므로, 정확한 비율은 산출하기 어렵지만 경제학사 소지자가 대학원 경제학과에 진학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表 3〉을 보면, 1987-88년간의 경우 학사학위만을 주는 80개 기관, 석사학위까지 주는 20개 기관, 박사학위를 주는 50개 기관에서 배출된 학사학위취득자는 6,910명인데 비해, 석사학위취득자는 719명, 박사학위취득자는 368명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학부의 전공에 관계없이 대학원 경제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직업관은 뚜렷하여, 경제학교수나 연구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경제학박사학위 소지자의 공급과 수요가 비교적 잘 조정된다고 생각된다.

〈表 3〉과 〈表 4〉를 비교해 보면, 1987-88년도의 경우 박사과정에 등록한 사람은 2,886명이며, 강사 이상 교수직에 있는 사람은 1,283명으로 교수對 대학원생의 비율은 1:2.5 정

〈表 4〉 經濟學 教授의 數

	1980	1987		1980	1987
학부단 있는 학교(80개중)			대학원이 있는 학교(50개중)		
경 교 수	110	155	경 교 수	624	648
부 교 수	128	151	부 교 수	278	287
조 교 수	150	150	조 교 수	341	326
풀 타임 강사	42	27	풀 타임 강사	45	22
합 계	430	483	합 계	1,288	1,283

資料 :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89, p.423.

도로 理想的인 比率을 갖고 있다. 박사과정 학생은 학위논문 작성시 주로 正教授를 지도교수로 삼아 논문을 쓰는데, 박사학위과정의 평균체류기간이 4~5년인 것을 감안하면, 교수의 인기도에 따라 편차는 크지만 평균적으로 지도교수와 논문작성자는 1對1 개인지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1986-87년에 Harvard大의 正教授의 수는 32명인데, 대학원 경제학과의 한 학년의 수는 40명 정도였다. 한편 대학원생은 강의조교(teaching assistant)가 되어 학부의 경제학수강자를 직접 가르치거나 교수의 강의를 보조하여, 상대적으로 과밀한 학부 경제학교육의 質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장래의 강의자로서 職業訓練을 쌓고 있다. 그 밖에 대학원생은 연구조교(research assistant)로서 교수의 연구를 보조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으며, 학교에서 입학시 또는 입학후 주는 장학금을 받으므로, 적어도 70% 이상의 대학원생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3. 學位要件

미국대학의 수와 학생수는 대단히 많지만, 教育制度面에서는 학교간의 차이는 별로 없다. 標準的인 教課過程과 유사한 學位要件을 갖고 있으므로, 경제학분야의 학위를 취득하는데 어떤 특정한 학교에서 제도적인 요건으로 인해 특히 어려워진다가나 쉬워지는 일은 드물다. 오랜 기간에 걸쳐 교육의 質이나 학생의 實力에 따라 상대적으로 입학하는데 경쟁이 심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몇 개의 集團으로 나누어져 인식되고 있는 형편이다. 예를 들어 Harvard대학의 경우 학부나 대학원 모두 지원자의 15%정도가 입학이 허용되고, 입학이 허용된 학생의 3분의 2 정도가 실제 등록한다고 되어 있지만, 경쟁이 심하고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20여개교의 경우 경쟁도는 비슷할 것이므로, 지원자의 選擇의 幅은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다.

1) 學士學位의 要件

미국대학의 학사학위의 요건은 우리나라에 비해 그다지 엄격하지 않은 편이다. 비교적

요건이 강한 MIT의 경우에도 졸업에 필요한 40개 정도의 과목 중, 경제학사를 취득하는데는 6개의 필수과목과 세미나 2과목, 기타 경제학분야의 선택과목 5개 정도만 이수하면, 경제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必須課目으로는 1년간에 걸친 經濟原論과, 한 학기에 강의를 마무리하는 中級微視經濟學, 中級巨視經濟學, 統計學, 計量經濟學이 포함된다. 따라서 유능한 학생은 다른 학과와 동시에 이수하는 전공(double major)으로서 經濟學을 수강할 수도 있다.

한편, 학부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經濟學을 공부하려는 학생은 자유로이 경제학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므로, 1학년이나 2학년 때 기초이론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학생은 微視나 巨視의 관련과목을 계속 수강할 필요없이 자신의 關心分野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우수졸업생 프로그램(honors program)을 개설하고 있다. Stanford 대학의 경우 1년간의 논문지도과목을 수강한 후 졸업논문(honors thesis)을 제출하면, 우수졸업생(B.A. with honors in economics)이 되도록 되어 있다. Harvard대학의 경우에는 關心事가 비슷한 같은 학년 학생 4~5명이 모여, 대학원생에게 지도(tutorial)를 받는 과목이 있다. 이와 같이, 경제학사 학위의 일반적 요건은 적은 대신, 능력과 관심별로 철저한 지도를 통해 장래에 경제학 전문가를 배출해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2) 석·박사학위의 요건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은 經濟學分野의 전문가가 되려고 상당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이므로, 석·박사학위의 요건은 학사학위에 비해 까다롭다. Brown大, Pennsylvania大와 상당수의 주립대학에서는 최소한 4~6학기 이상을 등록하여 필수적으로 일정한 수의 학점을 딴 다음 소정의 資格試驗을 치르도록 되어 있고, Harvard, Yale, Princeton 등에서는 學點制限은 없고 약간의 필수과목—미시, 거시, 제량 등—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치르면 논문을 제출할 資格을 주도록 되어 있다. 또한 박사학위까지 주는 대학에서는 석사학위를 위해 따로 논문을 쓰는 경우는 드물며,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석사학위를 인정해 주는데, 중도포기자가 많지는 않으므로, 經營大學院과 같은 전문대학원(professional school)과는 달리 석사학위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필수과목은 대체로 綜合試驗과 관계되므로 필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대학원 1년생이 수강하며, 기초적인 통계학, 제량경제학, 수리경제학 등은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거나 다른 과목의 先修科目(prerequisite)이 됨으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이 수강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資格試驗은 대체로 1년간의 핵심적인 教科目受講(course work) 후에 미시경제학과 거시

경제학 등에 대해 공통적으로 치르는 綜合試驗(general examination)과 그 후 1~2년간의 전문분야를 연구한 후에 2개 정도의 관련 전공분야의 소양을 口頭(oral) 또는 필기(written)로 평가하는 분야별 시험(field examination)이 있다. 예를 들어 Harvard大의 경우, 미시, 거시, 노동, 지역, 계량, 화폐, 산업조직, 재정, 국제, 경제체제, 경제발전, 경제사, 정치경제학 등이 분야로서 구성되어 있다.

博士學位論文(dissertation)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요건으로서 개인별로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창조적인 논문을 작성하고,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논문을 발표(defence)해야 통과된다.

4. 經濟學徒의 進出

미국경제학회(AEA)에서 1974년에 발간하기 시작하고, 현재 매년 7회 발행되는 경제학자의 취업정보지인 JOE(Job Openings for Economists)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경제학 학위 취득자를 고용하는 최대의 고용자는 학교이다. <表 5>를 보면 연구소, 정부, 금융기관, 회사의 순서로 구인광고를 많이 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 고용기관에서 구하는 경제학자의 전공분야는 JEL(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의 分類基準에 따르면, 일반경제이론(000), 화폐 및 재정(300), 계량 및 통계(200)의 순서로 되어 있다(<表 6> 참조). 이 밖에 국제경제학과 산업조직론이 점차 수요가 많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제 구체적인 시장메카니즘을 살펴보자.

1) 박사학위 후보자의 직업시장

미국의 경우 박사학위취득 예정자와 학교간의 職業市場(job market)을 미국경제학회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경제학회는 求人廣告와 求職廣告를 모아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매년말 개최되는 연차회의에서 供給者와 需要者가 만나서 면접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 직업시장은 크게 보아 세 가지의 분리된 시장으로 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는 미국경제학회의 회의를 통해 만나는 시장(primary market or meetings market)으로서

<表 5> JOE에 나타난 雇傭機關의 分布

각 년도 합계	학 부 만 있는 학교	대 학 원 이 있는 학교	연방정부	지방정부	금융기관	회 사	연구소	기 타	계
1980	291	460	51	24	23	6	72	22	949
1985	285	409	44	7	31	7	55	16	854
1988	260	458	67	16	39	19	84	8	951

資料: AER 各年度

〈表 6〉 JOE에 나타난 專攻別 求人分佈

	1975	1980	1985	1988
일반 경제이론(000)	399	803	741	862
성장과 발전(100)	121	195	149	221
계량과 통계(200)	181	365	272	332
화폐와 재정(300)	205	386	351	406
국제경제학(400)	92	190	210	303
재무, 경영, 회계(500)	244	244	210	201
산업조직론(600)	122	252	234	261
농업 및 자원(700)	77	200	110	124
노동(800)	109	200	153	205
후생 및 지역(900)	189	253	191	231
기타(A00)	7	50	40	38
관리(B00)	62	66	53	67
계	1,808	3,204	2,754	3,251

資料 : AER 各年度

1985—86의 경우 실제고용기회의 75% 정도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⁹⁾ 여기에는 후보자가 JOE 등을 참고하여 각 학교로 구직신청을 내면, 각 학교에서 12월의 연차회의에서 면접할 대상자를 정하고, 면접한 사람들중 다음 해 1~3月中 자신의 학교에 초청하여 세미나를 하게 한 후 4월 이전에 채용여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다음으로 연차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비공식적인 경로로 각 학과에서 적합한 인물을 발견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일종의 先買市場(preemptive market)이 있다. 이것은 전체 고용기회의 3% 정도에 해당하는 우수한 후보자와 명성이 있는 학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고용기회의 22%는 연차회의에서 면접하지 않은 후보자가 그 다음해 3~4월 경에 지도교수의 추천 등에 의해 미처 채워지지 않은 고용기회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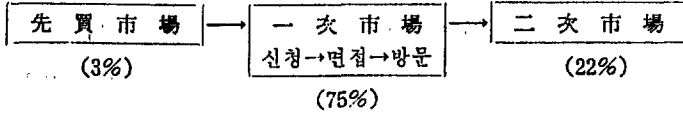
(이상에 대해서는 〈表 7〉을 참조하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比重을 차지하는 一次市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각 학교는 고용기회(job opening)에 대해 대체로 25명 정도를 면담하고, 그 중 5명 정도에게 학교를 방문하도록 하여 발표를 하도록 한다. 대체로 한 가지 고용기회에 대해 지원서류를 낸 사람은 100여명에 이르며, 전체적으로 볼 때 4년제 대학 경제학과에서 중신적으로 승진 가능한 고용기회(tenure track position)를 갖는 비율은 25% 정도가 된다.

면접대상자를 고를 때 중시하는 요인은 推薦書, 專攻分野, 發表된 論文, 발표 안된 論文이나 博士學位豫定論文의 質 등이며, 박사학위획득에 걸린 시간, 강의경험, 학교성적, 출신

(9) 이하는 Carson & Navaro(1988)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表 7〉 博士學位 取得豫定者의 職業市場構造



학교, 국적 등은 상대적으로 덜 중시된다. 또한 방문시 評價하는 基準은 질문에 대답하는 능력, 논문을 설명하는 능력, 앞으로의 研究計劃과 가능성 등을 중시하며, 人品, 언어구사력, 담당할 강의과목 등은 상대적으로 덜 중시된다. 특히 대학원이 있는 대학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하여, 뛰어난 논문을 많이 발표할 가능성, 연구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장 우선해서 뽑게 되는 것이다.

2) 종신직과 승진

일단 어떤 학교에 고용된 조교수급의 경제학자의 성취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미국의 대학에서는 종신직(tenure)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副教授 또는 正教授로의 승진과 함께 은퇴시까지 직업을 보장하는 이 제도는 학교내의 조직을 통제하는 기본수단이다. 어떤 사람을 승진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人事에 관한 은밀한(confidential)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教授의 身分上의 變動을 나타내는 〈表 8〉의 統計的 資料를 보면, 대학원이 있는 학교에서 부교수 또는 정교수로 승진하고 종신직을 얻기가 3:1의 경쟁을 이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계약 또는 승진에서 탈락된 상당수의 조교수가 상대적으로 평판이 낮은 학교 또는 非學閥部門(non-academic sector)으로 직장을 옮겨가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체로 자신이 학위를 취득한 대학에서 조교수로 고용되는 일이나, 조교수로 처음 고용된 大學에서 종신직을 얻는 일은 많지는 않다. 그리고, 각 조교수의 成就度는 우수한 전문지의 출판된 논문 등에 의해 전국적으로 평가받으므로 競爭의 原理는 강하게 작용한다.

미국대학의 종신직제도는 젊은 경제학자의 연구를 촉진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는데, Bell and Seater(1978)의 計量經濟學의 研究에 따르면, 종신직을 받기 전까지 발간된 논문의 수가 급격히 상승하다가, 종신직을 받은 이후에 논문의 절대수가 약간의 폭으로 감소한 후

〈表 8〉 教授의 身分上 變化

	1980~81	1987~88		1980~81	1987~88
학부만 있는 학교			대학원이 있는 학교		
고 용	45	43	고 용	78	93
부 교수 승진	13	16	부 교수 승진	28	30
정 교수 승진	11	13	정 교수 승진	27	28

資料 : AER, May 1989.

완전히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밖에 경제학자의 成果(performance)에 대한 대가인 봉급, 연구비 등도 논문의 數와 被引用度로 측정된 質 등에 크게 의존함이 밝혀져 있으며⁽¹⁰⁾, 교과서발간이나 정부연구서작성 등은 그다지 경제학자의 평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 편이다.⁽¹¹⁾

여기에서는 특별한 기여를 한 교수에게 주어지는 碩座制(chair)나 외부로부터 받는 연구기금 등 다른 대가에 대한 조사는 자료의 제약상 하지 못했음을 밝혀 둔다.

IV. 教育內容과 研究

1. 敎科課程

앞에서 학위요건을 설명할 때 밝혔듯이, 미국의 경우 교과과정에 있어서 학교간에 큰 차이는 없으며, 標準의인 敎科課程이 개설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강의자의 성향에 따라 제공되는 교과목이나 실제 가르치는 강의내용이 영향을 받는 것이지만, 담당교수진의 인적 구성이 必須科目이나 基礎科目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다만 선택과목의 구성이나 세미나, 논문지도 등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된다.

엄밀한 구분은 아니지만, 미국경제학계의 學風을 케인즈경제학이 풍미하는 兩海岸의 학교('salt water' institutions)와 통화주의가 팽배했던 중부지역의 학교('fresh water' institutions)로 나누어 보더라도⁽¹²⁾, 적어도 학부과정에 있어서 교과과정면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 東部海岸의 Harvard, MIT, Yale 등과 중부지역의 Chicago를 비교해 볼 때, 학위요건은 큰 차이가 없으며, 교과과정상의 차이도 그리 크지 않다. 경제학의 중요조류를 형성하고 있지 못한 학과의 연구자가 많은 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몇 가지 선택과목을 제외하고는 필수과목과 기초과목의 구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급진파 또는 마르크스경제학자들이 많은 Utah대학이나 Amherst所在 Massachusetts대학의 학부의 필수과목은 경제원론, 미시, 거시, 통계학 등이며, 경제사, 경제사상사, 경제발전론 등이 한 과목씩 더 부과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P. Davidson과 같은 포스트 케인지언(Post Keynesian)이 있는 Tennessee대학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교과과정상 특색을

(10) Diamond(1986)의 연구에 따르면 논문의 被引用回數 한 번의 경제적 가치는 \$50에서 \$1,300 정도라고 한다. 봉급과 被引用度의 關의 관계에 대해서는 Hamermesh外(1982)의 연구를 참조하라.

(11) Hawkins 등의 연구(1973)에 의하면 각종 연구매체에 대한 경제학자 자신의 평가순위는 논문, 미발간논문, 교과서, 편저, 정부보고서, 의회증언, 서평의 순서이다.

(12) Barber(1981, p. 537)의 표현을 빌었다.

보이는 대학은 대학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로서 여기에는 核心敎科目으로 미시, 거시와 함께 마르크스경제학이 동시에 부과되고 있다. 이제 각 교육 단계별로 교과과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자.

1) 학부의 교과과정

1979—80년도 미국의 546개 경제학과에서 경제학 전공자가 수강해야 하는 과목들을 조사한 Siegfried and Wilkinson(1982)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제학과에서 경제학개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통계학을 필수과목으로 요구하고 있다. <表 9>에서 보듯이, 그 밖에 화폐금융, 컴퓨터, 代數學, 경제사상사, 회계학 등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학교의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음을 이 연구는 지적하고 있다. 한편 그 밖에 경제학전공자에게 부과되는 특수한 요건들은 그리 많지 않다. 예를 들어 각 요건별 頻度順은 졸업시험(11.9%), 개별연구(10.0%), 졸업논문(7.2%), 분야별 필수과목요구(5.1%), 특정분야전공요구(4.3%), 세미나(2.5%), 인턴제(1.5%)의 순서이다. 참고로 경제학전공 총 학점요구수를 보면 학기제를 기준으로 할 때, 28~30학점이 가장 많았다.

각 경제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은 <表 10>이다. 이 표를 보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는 일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국제경제학, 노동경제학, 재정학, 미국경제사, 산업조직론 등이 많이 개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설된 교과목을 1940년대 말에 미국경제학회에서 조사한 敎科目과 比較해보면, 노동경제학, 농업경제학, 경기변동론, 소비자경제학을 개설한 학교의 비율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80년에는 교과목이 細分化되어, 미시분야와 거시분야 등으로 많은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9> 經濟學 必須科目 分布 (단위: %, 총표본수: 546)

과 목	1학점 이상	4학점 이상
개 론	95.4	76.4
중 급 미 시	92.5	21.1
중 급 거 시	90.3	18.5
통 계 학	84.8	37.7
화 폐 금 용	37.2	4.8
컴 퓨 터	28.7	6.0
대 수 학	21.6	11.2
경 제 사 상 사	15.8	2.0
회 계 학	14.3	7.0
재 정 학	7.7	1.1
계 량 경 제 학	5.9	1.6

資料: Siegfried and Wilkinson (1982, p.131)

〈表 10〉開設講座 및 受講人員比率

과목	개설학교비율(%)		평균수강인원 (n=495)	수강인원비율(%) (총원=797,220)
	1950 (n=71)	1980 (n=512)		
중급거시	—	94.7	38.5	13.05
화폐금융	97.2	85.3	42.3	12.87
통계학	77.5	50.0	36.8	11.70
중급미시	—	93.8	33.8	10.32
노동경제학	93.0	73.0	32.7	4.93
관리경제학	—	41.4	31.5	4.49
국제경제학	77.5	82.4	28.4	3.78
재정학	95.8	80.7	29.8	3.77
미국경제사	—	43.9	33.6	2.52
산업조직론	—	42.8	28.6	1.87
도시경제학	—	47.5	26.0	1.76
경제발전론	—	58.2	21.3	1.54
경제사상사	60.5	65.0	19.8	1.49
계량경제학	—	46.5	18.6	1.34
수리경제학	—	36.3	17.0	0.91
농업경제학	9.9	4.9	47.5	0.86
경제변동론	53.5	20.5	23.6	0.68
소비자경제학	47.9	9.8	38.7	0.64
정치경제학	—	8.4	26.8	0.36
마르크스경제학	—	9.8	25.7	0.30
소련경제	—	11.9	21.6	0.26

資料 : Siegfried and Wilkinson(1982, p.133), Taylor (1950, p.99).

註 : 1) 이 표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교과목은 43과목이며, 위 표에 나타난 과목도 반드시 수강인원비율의 상위 21개를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이와 같이 세분화된 교과목이 경제학전공자의 經濟學的 知識이나 經濟現實理解에 얼마 만큼 도움을 주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특히 중급 이상의 미시경제이론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¹³⁾ 그렇지만 오히려 미국대학에서 경제학개론 등 기초과목에 대해 충실히 가르치고⁽¹⁴⁾ 나머지 과목은 학생의 취향과 장래목표에 맞게 비교적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하는 학위요건을 보면 세분화된 교과목과 교육내용의 현실적합성 문제는 그리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13) Hartman(1978)은 Harvard에서의 경제학개론, 미시, 거시 등과 졸업시험점수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의문을 제기했다.

(14) 예를 들어 Harvard에서 경제학원론은 1년간 계속되는 과목으로서, 40여개의 分班(section)으로 나뉘어 조교수와 박사과정 학생이 20~30명 정도씩 나누어 가르치고 있으며, 중요한 주제는 각 분야별 담당교수가 전체강의를 하고 있어 1학년 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수강하는 인기과목이 되고 있다.

2) 대학원의 교과과정

미국대학의 경우 대학원의 교과목은 학부에 비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어서, 교수진의 연구와 학생의 학위논문작성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學位要件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대학원 1년차에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미시와 거시의 기초이론을 철저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학교에서 공통된 特徵이다. 예를 들어, Harvard에서는 가을 학기와 봄 학기에 걸쳐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기초를 계속 강의하는데, 半學期 동안 각 분야의 전공교수가 강의를 순서(sequence)대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즉 미시경제학의 경우 소비이론, 생산 및 시장조직, 일반균형, 불확실성순으로 각기 다른 교수가 강의하며, 거시경제학의 경우 케인즈경제학, 동학, 합리적 기대가설, 경제성장론을 각기 다른 교수가 강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基礎科目講義의 경우 각학교의 담당교수의 강의안(syllabus)을 보면, 미시경제학의 경우 大同小異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거시경제학의 경우 Harvard나 Yale에서는 케인저언의 IS-LM모형이 최근까지 가르쳐진 데 비해, Chicago에서는 별로 중시되지 않는다는

〈表 11〉 大學院 開設講座의 構成比率(%)

학교명	강과 일반정 제이론	수리, 계량, 통계	금 용	재 정	성 발	장 전	국 제 경제학	경제사 사상사	노동	정 제학	체 제	산 업 적 농 업
브라운	23.7	21.0	5.2	7.9	10.5	10.5	—	5.2	2.6	2.6	10.5	—
콜럼비아	14.9	21.2	2.1	2.1	8.5	10.6	12.7	8.5	4.2	4.2	10.6	—
인디애나	11.6	20.9	4.7	9.4	6.9	6.9	9.3	13.9	2.3	6.9	6.9	—
MIT	24.6	19.7	3.2	8.2	8.2	4.9	6.6	6.6	4.9	3.2	8.2	—
미네소타	13.1	16.3	11.4	11.4	9.8	3.2	3.2	13.1	—	4.9	13.1	—
스탠포드	17.0	21.2	4.2	4.2	10.6	6.3	10.6	6.3	8.5	4.2	6.3	—
미주리	14.8	22.2	3.7	7.4	18.5	7.4	7.4	7.4	—	3.7	7.4	—
노스웨스턴	23.9	10.8	6.5	6.5	10.8	4.3	17.3	10.8	2.1	2.1	6.5	—
UPEN	22.2	13.8	8.3	2.7	13.8	8.3	11.1	8.3	—	2.7	8.3	—
코넬	11.7	17.6	3.9	5.8	5.8	19.6	9.8	5.8	1.9	9.8	7.8	—
하버드	11.1	22.2	6.6	4.4	24.4	8.8	—	11.1	6.6	—	4.4	—
에일	6.7	13.3	3.3	6.7	21.6	8.3	18.3	5.0	1.6	1.6	5.0	1.6
위스콘신	10.7	10.7	4.7	8.3	15.4	5.9	9.5	13.1	4.7	8.3	7.1	1.2
UCLA	11.4	20.0	8.5	8.5	11.4	8.5	8.5	11.4	—	2.8	8.5	—
시카고	7.8	23.4	6.2	6.2	10.9	7.8	10.9	4.7	4.7	3.1	9.3	4.7
프린스턴	22.8	20.0	5.7	8.5	8.5	8.5	5.7	5.7	5.7	2.8	5.7	—
버클리	15.8	18.4	2.6	5.2	7.9	7.9	15.9	5.2	7.9	7.9	5.2	—
미시간주립	21.1	19.2	5.7	5.7	7.7	7.7	15.4	5.7	5.7	—	7.7	—
오하이오	20.7	17.2	10.3	13.8	3.4	10.3	3.4	—	—	3.4	6.9	—
피듀	22.2	17.8	8.9	11.1	8.9	13.3	6.7	4.4	—	2.2	4.4	—

資料: 정기준 외(1982, pp. 163-4)

차이는 있지만, 기초과목 강의안에 나타나는 參考文獻에 있어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專攻分野別로는 각 학교별로 특성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일반경제이론과 계량경제학, 산업조직론, 국제경제학, 화폐금융, 재정학이 중요한 분야이다. <表 11>은 미국의 중요한 20개 대학에서 개설된 분야별 강좌가 총과목의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해 놓은 것이다. 1970년대의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최근의 추세와 약간의 편차는 있을 것이지만, 각 학교에서 중요한 과목으로 개설된 분야는 그 비중이 그리 큰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준다. 그 반면, 경제발전론, 경제사, 경제사상사, 경제체제론, 정치경제학 등은 그 比重面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2. 學位論文과 研究成果

이제 미국의 경제학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박사학위요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학위논문에 대해서 살펴보자. 앞서도 밝혔듯이, 미국의 경우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학위를 수여받기 전에,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학위후보자가 職業市場을 위해 준비한 논문(job market paper)이 학위논문과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세 편의 우수한 논문(three essays)을 엮어서 박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 논문이 바탕이 되어 각종 전문지에 게재하기 위한 논문이 준비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박사학위논문의 구성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1) 박사학위논문의 분야별 구성

1940년에서 1974년까지의 박사학위논문이 제출된 학교별 구성과 분야별 구성을 조사한 Spellman과 Gabriel의 연구(1978)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경제학박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는 Harvard, Berkeley, Columbia, Wisconsin, Chicago 등의 순서이며, 조사된 모든 학교에서 제출된 논문의 분야별 구성은 <表 12>와 같다.

이 표를 보면, 1930년대와 1970년대를 비교해 볼 때, 국제경제학, 지역경제학, 계량경제학의 비중은 점점 커진 반면, 경제사, 경제사상사, 경제체제론 등은 그 비중이 적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이론과 노동경제학 등은 그 비중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수한 5개의 전문지(American Economic Review,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Economic Journal, Economica)의 분야별 구성을 조사한 Coats(1971)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분야별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는 없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연구성과와 학교순위

〈表 12〉 分業別 博士學位論文의 構成

	1904~28	1929~40	1970~74	1940~74
經 濟 理 論	5.9	5.6	6.0	6.0
經 濟 史 및 經 濟 學 史	13.2	6.9	3.0	4.0
農 業 組 織 業	9.1	12.9	10.0	13.0
產 業 組 織 論	8.9	8.8	9.0	10.0
國 際 經 濟 學	4.3	5.6	9.0	8.0
經 營 管 理	8.1	10.9	9.0	14.0
經 濟 體 制 論	3.3	3.9	1.0	1.0
勞 動	12.7	8.9	9.0	10.0
貨 幣 理 論 및 貨 幣 制 度	6.4	12.5	8.0	7.0
財 政 學	8.4	9.0	4.0	6.0
人 口 및 都 市 · 地 域 理 論	3.8	2.4	8.0	3.0
厚 生 消 費 者 經 濟 學	13.8	10.4	5.0	3.0
統 計 學 및 計 量 經 濟 學	1.9	2.2	5.0	3.0
經 濟 成 長 및 發 展	—	—	13.0	11.0
合 計	99.8	100.0	99.0	99.0

資料 : Spellman and Gabriel (1978, p.184)

각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진의 연구성과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우선 研究의 量的인 측면을 파악해보자. 각 개인으로 볼 때 한 연구자의 능력이 발표된 논문의 양과 質에 의해서 평가되듯이, 각 학교의 質은 교수진의 연구성과에 의해 평가된다. 실제로 Graves 등의 계량경제학적 연구(1982)에 따르면, 미국대학의 각 학교별 우선순위(ranking)에 대한 경제학자의 의견과 논문발표수는 강한 陽의 관계를 갖고 있다. 또한 Hogan(1986)의 연구에 따르면, 1970년대에 박사학위를 받은 각 출신학교별 경제학자의 논문발표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해 볼 때, 각 학과의 크기, 교수 對 학생비율 등은 영향이 적으며, 각 학교 교수진의 研究成果와 입학당시 학생의 質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연구성과가 많은 우수한 교수진을 가진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잘 교육된 결과 박사학위 취득자의 활동이 뛰어나며, 학교의 크기는 그리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로 각 학과별 순위에 관한 많은 연구 중 5개의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 본 것이 〈表 13〉이다. 이 표를 보면, Harvard, Chicago, Stanford, MIT, Berkeley, UCLA, Minnesota 등과 같이 규모가 크고 잘 알려진 학교 외에도, Rochester와 같이 중간 규모의 학교, Rice와 같이 덜 알려진 학교에서도 상당한 研究成果가 나오고 있다. 만약 교수 일인당 논문의 수와 같은 기준을 삼는다면, 미국의 우수한 50여개의 대학에 있어서 연구성과의 質은 큰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실제로 최근에 종합적인 기준으로 학교순위를 평가한 Laband(1985)의 연구결과를 보면, 상위 50개 학교의 종합적인 평점은 그리 큰 차이가 나지

表 13) 美國 經濟學科의 順位

조사자	A. Carter	Siegfried	Graves 外	Davis 外	Laband
대상연도	1964	1960~69	1974~78	1978~81	1983~84
조사방법	의견조사	논문발표실적	논문발표실적	피인용도	총 합
기준	교수진의質	AER, JPE, QJE 페이지수	24개 잡지 페이지수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논문, 취직 인용도
1	Harvard	Chicago	Chicago	Chicago	Chicago
2	MIT	Harvard	Harvard	Harvard	San Diego
3	Chicago	MIT	Stanford	MIT	Ohio
4	Yale	Yale	Wisconsin	Stanford	Yale
5	Berkeley	Berkeley	UPEN	Princeton	Princeton
6	Stanford	UPEN	MIT	Yale	Harvard
7	Princeton	Stanford	Yale	UPEN	Iowa
8	Michigan	Princeton	UCLA	Wisconsin	MIT
9	Columbia	Carnegie-M	Berkeley	Columaia	Columbia
10	Wisconsin	Columbia	Priceton	Berkeley	Stanford
11	Minnesota	Wisconsin	North W.	Michigan	North W.
12	North W.	Michigan	Michigan	UCLA	Minne.
13	Carnegie Tech.	Michigan S.	Washington	NYU	Rochester
14	UPEN	Rand Corp.	Rochester	North W.	UPEN
15	Johns Hop.	FRB	Illinois	Maryland	Tulane
16	UCLA	North W.	UNC	USC	Rice
17	Cornell	Brown	Columbia	Rochester	UCLA
18	Duke	UCLA	NYU	Minne.	Rutgers
19	Purdue	Rochester	Ohio	VPI	NYU
20	Michigan S.	Johns Hop.	Minne.	Washington	Tex. A&M

않고 있다.

3. 學風과 研究傾向

미국경제학계에서 경제학의 각 학파별로 얼마만큼의 학자가 어떤 연구를 내고 있는가를 파악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우선 어떤 학자가 어떤 학파에 속한다고 한 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전체적인 수를 계산하기는 더욱 어려우며, 各學派의 특징을 소개하기란 짧은 지면과 필자의 능력상 거의 불가능하다. 편의상 M. Blaug(1985)가 뽑은 케인즈 이후의 저명경제학자 100인의 國別, 學派別 構成을 살펴보자(表 14) 참조). 표본의 수도 작고, 필자가 잘못 분류할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의 저명경제학자의 분포는 소위 신고전파종합에 해당되는 학자가 44명, 통화주의자가 7명, 합리적 기대학파가 2명으로서, 광의의 主流經濟學者가 53명이다. 그 밖의 조류는 <表 14>에 나타난 바와 같다.

〈表 14〉 저명 경제학자 100인의 구성

분 야·학 파	미 국	기 타 국 가	계
미 시 경 제 학	20	12	32
개발론·경제사	12	—	12
계 량·수 리	2	3	5
케 인 지 언	10	5	15
시 카 고 학 파	7	1	8
합리적이기대학파	2	—	2
공 공 선 택 론	3	—	3
거시불균형이론	3	—	3
오 스트 리 안	2	2	4
제도주의·기타	6	3	9
포스트케인지언	0	5	5
마르크스주의	1	1	2
계	68	32	100

資料 : Blaug(1985)에서 작성.

이러한 학파가 敎育課程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1950—1968년간의 각 학교별 박사학위논문에서 자기 학교 교수의 논문이 얼마나 인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Friedland와 Stigler(1975)의 연구에 따르면, 자체내 被引用도에 있어서 학교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1950—1969년간 *AER*, *JPE*, *QJE*, 세 개의 잡지에서 각 학교출신별 경제학자의 논문이 어떤 비율로 실리고 있는가를 분석한 Strauss(1971)의 조사에 따르면, Chicago에서 발간되는 *JPE*에는 1960—1969년간에 Chicago출신이 총 페이지수의 10.6%, Harvard 출신이 1.9%를 발표한 반면, Harvard에서 발간되는 *QJE*에는 Chicago 출신이 3.2%, Harvard 출신이 12.3%를 발표하는 편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85년에 Chicago, Columbia, Harvard, MIT, Stanford, MIT 등 6개 대학의 대학원생들에게 경제문제에 대한 의견조사를 행한 Colander and Klammer(1987)에 따르면, Chicago의 大學生들이 新古典派 經濟學과 合理的 期待假說에 대한 신념이 가장 강하며, Harvard와 Yale의 경우 가격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대해 懷疑를 하고 있다. Chicago의 대학원생들은 인플레이션이 파괴적 현상이라는 通貨主義的 命題에 대해 84%가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반면, MIT의 경우 7%만이 강하게 동의하고, 44%는 약간 동의하며, 36%가 반대하고 있다.

1977년에 무작위로 추출된 211명의 미국경제학자에게 행한 Kearn 등(1979)의 의견조사를 보면, 두 가지 상반된 견해에 대해 절충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 경제학자들은 거시경제학적 명제보다도 미시경제학적 명제에 대해서, 또한 規範的 명제보

다 實證的 명제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最低賃金制가 미 숙련노동자에게 불리하다는 실증적 미시경제학 명제(micro "can")에 대해서는 68%가 동의하는 반면, 정부가 完全雇傭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범적 거시경제학 명제(macro "should")에 대해서는 26%만이 동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범적, 거시경제학적 문제에 있어서는 학파별로 의견이 다르리라고 생각되며 실제로 중부지역의 학교와 동부지역의 학교 간의 巨視經濟學 研究傾向의 차이로 인해 케인 지언의 성립, 통화주의의 反革命, 합리적 기대학파의 성립, 새로운 케인지언의 逆攻 등 거시경제학적 논쟁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러한 차이보다, 미국 경제학의 標準的 教科課程 뿐만 아니라, 研究方法論의 공통적 특성을 강조하고 싶다. 예를 들면 합리적 기대가설의 등장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균형개념의 확대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넓은 의미의 主流經濟學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공선택론, 거시불균형이론, 오스트리안 등은 개인의 最善化 行동을 분석의 출발로 삼는 方法論的 個人主義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미국의 급진파 경제학자(radical economist)의 연구도 정통적 마르크스주의의 분석방법을 따르고 있기보다는, 미시경제학 또는 계량경제학적 연구방법을 따르는 업적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싶다. 예를 들면 개인의 賦存資源의 差異가 계급적 위치를 결정한다고 일반균형이론적으로 분석한 합리적 마르크스주의자인 Roemer(1988)의 연구, 노동자에게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해 임금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균형에서도 失業이 존재한다고 밝힌 S. Bowles(1985)의 연구,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동태적 게임이론으로 설명한 P. Mehring(1986)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V. 結 論

미국경제학은 현재 全世界의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창조적인 研究業績이 미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유럽에 비해 늦게 발전한 미국이 2차대전 이후 경제학 연구의 중심국이 된 이유는 대규모의 教育投資 의에도, 教育制度의 效率性과 자유로운 研究活動의 보장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의 주제인 教育制度面에서 볼 때, 미국의 經濟學產業은 표준적인 교과과정, 경쟁 원리의 도입에 의해 대규모 생산의 利點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고 보여진다. 학위요건이나 교과과정면에서 동질적인 성격이 강하여, 교육과 연구성과의 質이 공정하게 비교, 평가되어 경쟁의 원리가 모든 교육단계별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교과과정상의 특성보다도 학교

교수의 연구성과와 업적이 학생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각 학교에서는 교수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 재정면에서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가 승진, 보수 등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풍토하에서 미국경제학이 새로운 經濟學의 研究傾向을 주도해 왔는데, 각 학파별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한 균형이론의 중시와 計量經濟學의 실증에 의한 뒷받침 등이 공통된 특성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경향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필자는 展望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강명규, 「한국경제학의 비판적 성찰」, 『經濟論集』, 1981. 12.
- 강우철 외 2인, 『전국대학교수자원의 특성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3.
- 유장희, 『경제학의 새 조류』, 매일경제신문사, 1987.
- 이형순, 『현대거시경제학의 논점』, 법문사, 1982.
- 정기준 외 5인, 『경제학분야 대학원교육제도의 국제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82.
- Ault, D.E., et al., "Mobility in the Labor Market for Academic Economists,"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9:148-53.
- Barber, W., "The United States: Economists in a Pluralistic Polity,"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Fall 1981:513-47.
- Bell, J.G., and Seater, J.J., "Publishing Performance: Departmental and Individual," *Economic Inquiry*, Oct. 1978:599-615.
- Backhouse, R., *A History of Modern Economic Analysis*, Basil Blackwell, 1985.
- Bergmann, B.R., "Report of the Committee of Status of Women in the Economics Profession,"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84:457-62.
- Blaug, M., *Great Economists since Keynes*, Sussex: Wheatsheaf Books Ltd., 1985.
- Blaug, M., and Sturges, P., *Who's Who in Economics*, Sussex: Wheatsheaf Books Ltd., 1983.
- Bowles, S., "The Production Process in a Competitive Economy: Walrasian, Neo-Hobbesian, and Marxian Models,"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85:16-36.

- Buchanan, J.M., and Tollison, R.D. (ed.), *The Theory of Public Choice-II*,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84.
- Carson, R., and Navaro, P., "A Seller's (& Buyer's) Guide to the Job Market for Beginning Academic Economis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 Spring 1988: 137-48.
- Carter, A.M., "Economics of the Universi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5, May 1965:481-94.
- _____, "Whither the Market for Academic Economists,"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2:305-10.
- Coats, A.W., "The First Two Decades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 1960:555-74.
- _____, "The Role of Scholarly Journals in the History of Economics: An Essa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March 1971:27-44.
- _____, "The Culture and the Economists: Some Reflections on Anglo-American Differences,"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1980:588-609.
- Colander, D., and Klamer, A., "The Making of an Economis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 Fall 1987:95-111.
- Craver, E., "The Emigration of the Austrian Economists,"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Spring 1986:1-32.
- Craver, E., and Leijonhufvud, A., "Economics in America: the Continental Influence,"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Summer 1987:173-82.
- Davis, P., and Papanek, G.F., "Faculty Ratings of Major Economics Departments by Cit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74:225-30.
- Diamond, A.M., Jr., "What is a Citation Worth?,"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21, Spring 1986:200-15.
- Frey, B. S., et al., "Consensus and Dissension among Economists: An Empirical Inquiry," *American Economic Review*, Dec. 1984:986-94.
- Freidland, C. and Stigler, G.J., "The Citation Practices of Doctorates in Economic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75:477-507.
- Graves, P.E., Marchand, J.R., and Thompson, R., "Economics Departmental Rankings:

- Research Incentives, Constraints, and Efficiency," *American Economic Review*, Dec. 1982:1131-41.
- Hamermesh, D.S., et al., "Scholarship, Citations and Salaries: Economic Rewards in Economics," *Southern Economic Journal*, Oct. 1982:472-81.
- Hansen, W.L., et al., "Forecasting the Market for New Ph. D. Economists,"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80:49-63.
- Hartman, D.G., "What Do Economics Majors Learn?"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8:17-22.
- Hawkins, R.G., Ritter, L.S., and Walter, I., "What Economists Think of Their Journal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1, 1973:1017-32.
- Hirsh, B.T., et al., "Economics Department Rankings: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 1984:822-6.
- Hogan, T.D., "Faculty Research Activity and the Quality of Graduate Training,"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16, 1981:398-415.
- _____, "Economics Department Rankings: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4, 1984:827-33.
- _____, "The Publishing Performance of U.S. Ph. D. Programs in Economics during the 1970s,"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21, Spring 1986:216-29.
- Kearl, J.R., et al., "A Confusion of Economists?,"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9:28-37.
- Kim, Kyun, *Equilibrium Business Cycle Theory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Laband, D.N., "An Evaluation of 50 "Ranked" Economics Departments—By Quantity and Quality of Faculty Publications and Graduate Student Placement and Research Success," *Southern Economic Journal*, 1985:216-240.
- Mason, E.S., "The Harvard Department of Economics from the Beginning to World War II,"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Aug. 1982:383-434.
- McCloskey, D.N., "The Rhetoric of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June 1983:481-517.
- Mehring, P., "A Classical Theory of Class Struggl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86:

1280-303.

- Morgan, T., "Theory versus Empiricism in Academic Economics: Update and Comparison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 Fall 1988:159-64.
- Niemi, A.W. Jr., "Journal Publication Performance during 1970~1974: The Relative Output of Southern Economics Departments,"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 42, No. 1, 1975:97-106.
- Quandt, R.E., "Some Quantitative Aspects of the Economics Journal Literatu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4, 1976.
- Reagan, B.B., "Stocks and Flows of Academic Economists,"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9:143-47.
- Roemer, J., *Free to Lose*, London: Radius, 1988.
- Roemer, J. (ed.), *Analytical Marx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Scott, C.E., "The Market for Ph.D. Economists: The Academic Sector,"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9:137-42.
- Siegfried, J.J., "The Publishing of Economic Papers and its Impact on Graduate Faculty Ratings, 1960~1969,"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March 1972:31-49.
- Siegfried, J.J., and Wilkinscn, J.T., "The Economics Curriculum in the United States: 1980,"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82:125-38.
- Siegfried, J.J., and Raymond, J.E., "A Profile of Senior Economics Major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84:19-25.
- Spellman, W.E., and Gabriel, D.B., "Graduate Students in Economics, 1940~1974"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8, 1978:182-87.
- Strauss, R.P., "A Younger Economist's Views on the Market,"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1:327-33.
- Taylor, H. (ed.), "The Teaching of Undergraduate Economics," *American Economic Review*, Dec. 1950 Supplement.

〈討 論〉

尹鳳駿教授*의 論評

洪起玄 교수의 논문, 「美國의 經濟學敎育과 研究」는 미국경제학의 歷史와 최근 개발된 이론의 특징, 미국 大學 및 大學院에서의 경제학 敎育제도 그리고 경제학 연구에 있어서 연구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 종신교수(tenure)제도, 연구업적주의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또 명료하게 소개를 해 준다. 미국에서의 경제학敎育과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홍교수의 논문을 읽으면 충분하다고 본다. 조금 무리한 주문을 하자면 단순한 「소개」의 측면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보다 창의적인 논문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즉 미국의 현재도가 어떻게 하여 生成될 수 있었는가를 연대적적 나열이 아닌 홍교수 자신의 분석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토픽(topic)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예컨대 왜 미국대학교의 교수들이 강의보다는 유수학술지의 논문게재에 의한 연구업적을 중시하게 되었는가이다. 본 논평자의 견해로는 미국경제학 敎育의 평준화가 이에 기여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학부의 경제학 강의에 있어 미국대학의 대부분의 敎과내용, 강의의 질이 평준화되었으며 이는 名講義 교수 그리고 양질의 학부敎과서들이 조그맣고 이름없는 대학의 교수들에 의해 쓰여진 데서 입증된다. 대학원 敎育에 있어서도 강의내용과 교수의 강의성실도는 세칭 일류대학 즉 「아이비리그」 보다는 주립대학들이 더 낫다는 평판이다. 따라서 경제학자로서의 聲價를 올리자면 독창적인 연구업적을 내놓아야 한다. 또 생산적인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관심분야의 동료들과 부단한 토론, 조언이 필요하므로 교수 채용시에 있어서 가능하면 자기 전공분야의, 그리고 연구업적이 많이 쌓인 壯年교수(senior professor)를 선호한다. 따라서 유명한 대학은 그것이 자부하는 정평있는 전공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 내노라하는 경제학 교수들 여러 명 두고 있다. 또 조교수들도 학위를 끝내고 구직대학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그 대학에서 자기 분야를 누구와 함께 연구할 것인가다. 즉 동일 연구자들의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를 확보하자는 것인데 이는 동일분야 교수의 채용을 기피하는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고용관행과 대조적이다.

그렇다면 연구업적 重視를 낳게 한 강의의 평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의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홍교수의 논문이 잘 설명하듯 多數의 경제학교수 및 경제학 전공 학생들에

* 뉴욕주립대 經濟學科 副敎授, 韓國勤勞研究院 招聘研究委員.

의한 규모의 경제에 기인한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미국대학의 경제학 교육은 양질로 상품표준화가 된 대량생산체제이며 경제학 연구는 기술혁신에 의해 주도되는 다품종 소량생산—품질다변화가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제학 교육제도 中 독특한 것으로 홍교수 논문에 소개되지 않은 것은 학기말 中 학생들에 의한 교수의 강의평가조사(student survey of teaching evaluation)이다. 이것이 강의의 質統制(quality control)의 간접적 방법이 되며 또 조교수의 종신직 승진에 있어서 필수적 고려사항이 된다. 종신교수직을 얻자면 연구업적이 있어야 하지만 강의능력이 없으면 고려대상에서 탈락되기 때문이다.

洪 薰教授*의 論評

洪教授가 발표한 논문의 내용은 미국경제학의 교육제도, 교육내용, 그리고 이와 연관된 미국 경제학계의 성격규정으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教育制度에 대해서는 경쟁의 자극속에 표준화된 교과과정을 거쳐 표준화된 「商品」이 생산된다는 홍교수의 주장에 큰 이의가 없을 것이다.

둘째, 新古典學派가 지배적이어서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교과목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과목의 내용에 대한 홍교수의 주장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단, 위의 몇몇 학교들의 한 예로서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의 경우 微視, 巨視科目은 Sraffa와 Kalecki에 근거해 新古典學派를 비판하는 것이 주제내용이므로 교과목이 타학교들과 같다고 말하기 힘들다.)

그러나 세계 주제인 美國經濟學界의 성격에 대해서는 성급한 판정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체로 각국마다 여러 학파가 공존하고 있으므로 특정국가의 學間的 特性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내에 대립하면서 공존하고 있는 제학파간의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이런 작업은 물론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속단하지 않고 몇 가지 가능한 가설들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제학계 전체를 方法論的 個人主義와 計量的 接近으로 규정한 것은 속단이 아닌가 생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만 신고전학파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학계와 신고전학파를 거의 동일시하는 것 같다. 또한 미

* 延世大學校 經濟學科 助教授

국에 존재하는 신고전학파 이외의 학파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분석해서 미국적 특성을 찾아내기 보다는 이들을 신고전학파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다. 가령, Roemer를 미국의 대표적인 마르크스류 경제학자로 분류하기는 힘들 것이며 미국 뿐만 아니라 여타국의 非新古典學派的(non-neoclassical) 학파들도 계량적 방법을 구사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홍교수의 신속한 판단에 대신해 미국적 성격을 규정하는 잠정적인 출발점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예시될 수 있을 것이다. 후기케인즈학파내에서 영국과 미국학자들의 차이, 마르크스학파의 경우 프랑스와 독일에 비해 사변적인 부분이 회색되는 현상, 그리고 신고전학파 이외의 학파들에 대한 극단적인 무관심과 몰이해가 그대로 관용되고 있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